

주말 쇼핑

올 봄 패션 트렌드



더 밝고, 더 화려하게 입는다

봄을 맞아 산뜻한 옷 한 벌 장만하고 싶지만 가벼워진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면 부담스럽다. 이럴 때 원피스나 밝은 색 니트 등 가벼운 옷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역 백화점 패션매장 매니저들은 올 봄 패션 트렌드로 화려한 꽃무늬와 복고풍 스타일을 꼽았다. 여성복의 경우 노란색, 오렌지색이, 남성복은 진한 블루나 그린 색상이 유행한다고 말했다.

불황 맨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

◇화사한 컬러, 화려한 무늬=컬러나 무늬 혹은 액세서리 중 한 곳에만 포인트를 주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꽃무늬 프린트 블라우스, 화려한 컬러의 청바지, 주름이 풍성한 원피스 등이 올 봄 유행 아이템이다.

밝은 컬러가 뚱뚱해 보일까 걱정된다면, 체도 가 낮은 의상에 머플러나 가방, 액세서리 등을 화사한 컬러로 매치한다. 단, 무늬가 들어간 상의를 선택한다면, 하의는 단색으로 매치해 단순하고 단정하게 연출하는 것이 좋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이상미 매니저는 핑크 원피스(리안뉴욕·12만9천원)과 꽃무늬 스커트(나이스크립·10만원대)를 추천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패션스트리트 송창현 매

니저는 니트 원피스(마스트비·8만8천원)와 화려한 색상의 남방과 가디건(르샵·각 3만9천원)을 꼽았다. 또 7만원대의 트렌치코트(르샵)를 비롯해 6만원대 원피스도 추천했다.

◇돌아온 복고비램=불황 여파로 과장된 실루엣이 특징인 복고패션은 유행이다. 특히 어깨 부분에 패드를 넣어 과장되게 살린 디자인은 이번 시즌 유행 아이템이다. 어깨 각 살린 재킷 하나로 복고 열풍에 동참할 수 있다.

어깨 라인이 강조된 재킷에는 부츠 커치나 웨이드 팬츠 등 단순한 하의를 매치해야 한다. 진주 목걸이나 스카프 등을 매치해 복고풍 패션을 완성하는 것도 좋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이상미 매니저는 쿠아 재킷(16만9천원), 롱재킷(17만9천원)을 추천했다.

남성복 엘레강스 스타일 인기

◇‘꽃보다 남자’ 주인공처럼=남성복의 경우는 귀족적이면서도 세련된 ‘엘레강스 맨’을 강조하는 스타일이 유행할 전망이다.

비단에 흔들리듯 가벼운 소재로 연출하는 ‘플루이드 스타일’, 캐주얼 아이템을 매치한 심플한 스타일의 ‘프레피룩’ 등이 핵심 키워드다.

롯데백화점 남성·캐주얼 정환진 매니저는 스트라이프 셔츠(빈폴·13만8천원), 바지(빈폴·12만8천원) 등을 추천했다.



올 봄에는 꽃무늬를 비롯해 화려한 무늬와 컬러풀 한 의상이 유행할 전망이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광주신세계 백화점 패션스트리트 송창현 매니저는 컬러 셔츠(노른·4만9천원), 청바지(풀웹·3만9천원), 니트(풀웹·2만9천원) 등을 추천 품목으로 꼽았다.

/이은미기자 emlee@

1달러=1,404원

원·달러 환율이 3일째 상승

두달 여만에 1,400원대

이날 환율은 1.50원 오른 1,395.00원으로 거래를 시작해 1,398.00원으로 상승한 뒤 매물 유입으로 1,384.00원으로 밀렸다.

오후 들어 환율은 1,398원 선으로 복귀한 채 공방을 벌인 뒤 장 후반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1,406.00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 금융회사 확대

3월부터 은행과 보험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판매한다.

주택금융공사는 12일 다음 달부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판매 회사를 현재 11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농협, 기업, 신한, 외환, SC 제일, 하나, 광주, 경남, 제주은행과 삼성화재, LIG손해보험에서 판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 대구, 부산, 한국씨티, 우리은행과 수협중앙회, 대한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등에서도 취급한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부부 합산) 2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가 3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 구입 때 최대 1억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차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하며 연소득 1천6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에 비해 1% 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C&중공업株 12거래일 연속 상승

해외매각설에 과열 양상

C&그룹주들이 C&중공업의 해외 매각 추진 등을 재료로 급등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증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이상 과열현상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C&중공업을 비롯해 C&상선, C&우방, C&우방랜드 등 C&그룹주들이 일제히 가격제한폭까지 올랐다.

이 가운데 워크아웃(채권단공동관리)에 들어간 C&중공업은 이날까지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 이기간에 440원에서 2천190원으로 약 4배가 올랐다. 또 C&상선과 C&우방, C&우방랜드는 지난 6일 하루를 제외하고 9거래일 상한가를 기록했다.

C&그룹주가 최근 일제히 오른 것은 채권단이 지난 9일 C&중공업의 해외 매각을 추진키로 하고 워크아웃 시한을 한 달 연장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시 전문가는 “투자자들이 추격매수에 나설 경우 손실을 볼 수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출의 대상은 지역내 시장 상인, 40세 미만 청년 소상공인, 재창업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사람 등이다.

시장 상인과 재창업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출은 연 4.5%의 금리에 1인당 500만원이 한도다. 또 청년 소상공인들에게는 연 3.5%의 금리에 최고 2천500만원까지 대출된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현대백화점 HYUNDAI

Women in Love

발렌타인데이
당신의 달콤한 마음을 전하세요.

카드+현금+상품권 합산 가능

구매고객께 현대상품권을 드립니다

증정기간: 2/13(금) ~ 2/22(일), 10일간

증정장소: 8층 사은동 증정 네스크



20만원 이상 구매시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만원

40만원 이상 구매시

현대백화점 상품권 2만원

60만원 이상 구매시

현대백화점 상품권 3만원

당일 본인 구매 명수증에 관하여 합산 가능, 명수증 분할증정 불가, 다른 행사와 함께 혼용 불가. 상품권은 할인권, 멤버십, 일회용권, 인터넷권, 신용카드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기관/기관/학생회/교포 등은 제외됩니다. 기관/기관/학생회/교포 등은 제외됩니다.

기본 상품권은 구매금액의 50%만 인정되며, 일부 브랜드 제외됩니다.

카드+현금+상품권 합산 가능

「가전/가구」 고액 사은대잔치

증정기간: 2/13(금) ~ 2/21(일), 10일간

증정장소: 8층 사은동 증정 네스크



100만원 이상 5만원 상품권

200만원 이상 10만원 상품권

300만원 이상 15만원 상품권

500만원 이상 20만원 상품권

당일 본인 구매 명수증에 관하여 가전/가구 상품권에서만 협상 가능합니다.
명수증 분할증정 불가. 다른 행사와 혼용 불가. 상품권은 기관/기관/학생회/교포 등은 제외됩니다.

기본 상품권은 구매금액의 50%만 인정되며, 일부 브랜드 제외됩니다.

| 2.13(금) ~ 2.15(일) 8시 30분까지 연장영업, 2.16(월) 정상영업 합니다. |